

야타키 성터

야타키 성은 16 세기에 이와미 은광과 광산의 주요 물자 공급원이었던 유노쓰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2 개의 산성 중 하나입니다. 이 산성은 1528 년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전국 다이묘 오우치 요시오키(1477~1529)가 길 남쪽의 높은 구릉지에 쌓은 것입니다. 해발 634m 의 길고 좁은 형태의 산 정상 전체를 차지한 성 주변에는 돌담과 물 없는 해자 등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. 정상 북쪽 끝에 세워진 야타키 성의 원형 천수각에서는 도로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하나의 산성인 야하즈 성을 아무런 방해 없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.

다이묘들 간의 동맹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던 1500 년대에는 이와미 은광을 둘러싸고 전국 다이묘들이 전투를 벌인 탓에 성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, 1600 년대 초기에 도쿠가와 막부가 이와미 은광을 수중에 넣으면서 성의 중요성은 점차 사라졌습니다. 그후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의 시대를 지나며 야타키 성을 비롯한 중세 시기의 성곽들은 서서히 황폐해졌습니다. 산 정상의 평탄한 지대는 제 2 차 세계대전 후 미군이 레이더 기지(후에 방송 송신 시설로 바뀜)를 건설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한 것으로, 현재 야타키 성의 유구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. 산 정상까지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1 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.